

도 많이 있다. 우리 눈에 쉽게 띄는 것으로 나무로 만든 그릇이 있다. 이러한 목기(木器)는 원시 시대에 살림에 거주하던 원시인들이 주로 사용하였다. 지금도 농가에서는 물을 푸는 두레박, 쌀을 이는 이남박, 대야의 한 가지인 목대야 등을 나무로 만들어 사용하는 일이 흔치는 않지만 있다.

또한 제기(祭器)에도 유기(鑪器)·사기·목기가 있으나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목기가 많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제목기(祭木器)에는 접시·잔·반(盤) 등이 있다. 목기 접시는 일반 사기접시와는 달라서 사용에 껍이나 편리하게 만들어졌다.

이외에도 나무의 쓰임새는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이 있다. 만약 우리 인류에게 나무가 없었다면, 썩 불편한 생활이 되었고 지금과 같은 문화생활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무로 만든 목관(木棺), 관현악기의 일종인 목관악기(木管樂器), 목금(木琴)실로폰, 그리고 지하에 구멍을 파고 관의 부장품을 넣는 방을 목재로 구축한 묘가 목곽묘(木槨墓)이다. 또한 글을 적은 나무 조각인 목간(木簡), 운동구로 네다리가 고정된 목제의 말 곧 목마(木馬), 주로 목재를 사용해서 만든 배인 목선(木船), 목어(木魚)하면 일반인들이 잘 모르나 목탁(木鐸)하면 독경(讀經)이나 염불(念佛)을 할 때에 두드리는 불구(佛具)의 하나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무수히 많다. 나무로 만든 목탑(木塔), 목판(木版), 목판화(畫), 목화(木靴), 나무토막으로 만든 베개인 목침(木枕), 목면(木綿), 목마패(木馬牌), 목랍(木蠟), 목판인쇄 등 많이 있다. 그러나 목걸이, 목돈, 목방기탕(木防己湯), 목

성(木星), 목은성(木銀城), 목정(木精), 목도리, 목향화(木香花)는 나무(木)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위의 예(例)중에서 목도리는 목에 두르는 것의 총칭인데, 방한·장식 또는 먼지를 막기 위하여 주로 쓰인다. 그 종류도 많고 명칭도 여러가지가 있으나 엄밀히 구별지어서 사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서양에서는 목에 두르거나 머리를 싸매는 장식용의 스카프(scarf), 목에 두르며 먼지를 막고 장식도 겸한 네커치프(neckerchief)가 있다. 또한 대형으로 어깨를 덮는 숄(shawl), 소형의 장방형이며 주로 방한용에 쓰이는 머플러(muffler), 그리고 대형이며 장방형의 방한과 장식을 겸한 스톨(stole)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나무와 관계없는 것중에서 《목매는 여자》가 있다. 1923년 《백조(白潮)》에 발표한 작품인데, 월탄(月灘)박종화(朴鍾和)가 지은 단편소설이다. 《백조》동인으로 문단에 나타난 월탄의 일대 출세작이라고 분석된다. 한국현대문학사에 나타난 최초의 혜성적(慧星的) 역사소설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목재를 골조(骨組)로 한 건축물 곧 목구조(木構造)에는 한식(韓式)목조·양풍(洋風)목조·목골(木骨)콘크리트 블럭조(block造)·창고조 등이 해당된다. 경량으로 구축이 용이하며, 건축비가 저렴하나, 내화성이나 내구성에 난점이 있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목공예의 한 기법으로 목화(木畫)도 있다. 색이 다른 이빨·뿔·나무·대나무 등의 가느다란 조각을 나무바탕에 상감(象嵌)하여 그림무늬나 기하학적 무늬를 나타낸 것이다.

서양에서는 가구(家具)용의 장식으로서 특히 발달하였다. 그리고 또 목형(木型)이 있는데, 이는 목제(木製)의 주물용(鑄物用)의 원형(原型)을 말한다. 도자(陶瓷)나 주조 등의 공예품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그의 원형이 될만한 형상(形狀)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으로 공예품은 이러한 목형에 부어서 만든 것이다. 대개는 설계보다 약간 크게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 한다.

이제는 기계쪽으로 가자. 목공기계(木工機械)는 광의(廣義)로는 목재가공용도의 기계를 총칭하는 것으로, 원목에서 비교적 큰 판재(板材)나 각재(角材)를 잘라내는데 사용하는 제재(製材)기계를 말한다. 이는 베니어 기계 및 협의의 목공기계를 말한다. 제재품에 절삭(切削)·절단·구삭(構削)·모서리깎기·연삭(研削) 및 조각(彫刻) 등의 가공을 하여 소요(所要)되는 형상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협의의 목공기계로, 이에 는 띠톱반·등근톱반·각끝반·대패반(盤) 등이 있다.

공구(工具)라 함은 공작(工作)에 쓰이는 작은 기구의 총칭이기도 하고 또는 기계공작에 사용되는 날(edge)이 있는 기구를 말하기도 한다. 목공(木工)은 목재를 가공하는 작업의 총칭인데, 건축·가구·선차(船車) 그밖의 기구의 제조에 관한 목재가공 작업을 이르며 대목·소목·통쟁이 등이 이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나무를 다루어 집을 짓거나 여러가지 물건을 만드는 목장(木匠) 또는 목수(木手)는 크게는 배목수·공목수·가구목수 등을 포함하나 보통은 가옥건축에 종사하는 목수를 말한다. 율령시대(律令時代)에는 조영(造營)사업을 관장하는 목공료(木工寮)가 있어 각지방에서 목공직을 징

발했다고 한다. 중세에는 신사(神祠)나 절간과 같은 일에 공상(工商)의 자리가 조직되어 나무 쪼개는 법이 고안되어 번장(番匠)이라는 낱말도 새로 생겼다. 근세에는 성(城)밖에 목공마을이라고 하는 전문마을이 형성되었으며 목공직인의 장(長)은 동량이라고 불리웠다. 그들은 어용목공이라 하여 주중간(株仲間)을 만들었으므로 일반 직인은 해가 거듭해도 두목(頭木)·동량은 평생 되지 못하고 일생을 평목공으로 견뎠다.

이와 관련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데에 사용하는 연장을 목공구(木工具)라 한다. 톱·대패·끌·송곳·쇠망치외에 굵자(기역자형의 자)·괘인(罫引)·못뽑기 등 종류가 많다. 또한 소형 모터를 사용하는 등근 톱·대패·드릴 등의 전기 목공구(電氣木工具)도 최근에는 가정공작용(家庭工作用: D.I.Y.)으로 보급되어 있어 목공에 널리 쓰이고 있다.

요즈음 소형가전이 물밀듯 수입이 되어 국산 소형전기용품이 국내에서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에는 근처에 외제에 대한 선호도가 불행하게도 깔려 있는데 수입품이 이를 부추기고 있고,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다.

이뿐이랴, 공구도 마찬가지다. 전통공구가 국내 시장의 연간 수요량이 대략 1,500억 원으로 보았을 때 이미 그 반(半)이 수입품에 의해서 점거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목공구도 수입품 특히 일제제품에 의한 악몽과 같은 세찬 회호리가 또 한차례 예상되고 있다. 대항단계에서 이미 한 템포 늦었지만 이제라도 여기에 대한 만반의 대비가 있어야겠다. 우리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이점을 지금 깊이 반성해야 한다.